

1946년 10월 26일 창간 | 제 2865호

Honam Shinmun

2020년 2월 11일 (음력 1월 18일) 화요일

미국 아카데미상, 92년 역사 ‘한국이 새로 썼다’

영화 ‘기생충’ 최우수작품상 포함 4관왕 쾌거

65년만에 칸 황금종려상·오스카상 동시 정복

감독상 받은 봉준호, 아시아출신 두번째 수상

영화 ‘기생충’(감독 봉준호)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까지 총 4개의 트로트를 품었다.

(관련기사 11면)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10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한국 영화 역사 101년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작품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칸영화제와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은 영화 역사를 통틀어 ‘기생충’이 두 번째다. 1955년 미국 영화 ‘마티’가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동시에 받은 이후, 65년 만에 재현됐다.

감독상은 대만 출신 이안 감독이 ‘브로크백 마운틴’과 ‘타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수상한 이후 아시아계로서는 두 번째 수상이다. 각본상의 경우 아시아계 작가 최초 수상이다.

‘기생충’ 배우인 CJ ENM의 모회사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도 무대에 올라 “봉준호 감독에게 감사한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미소와 독특한 미리스타일, 말하는 방식, 걸음걸이까지, 특별히 감독으로서의 연출 능력을 사랑한다”면서 봉 감독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날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수상 직후 “조금 전에 국제극영화상 수상하고 오늘 할 일 끝났구나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이어 그는 “어렸을 때 항상 가슴에 새긴 말이 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

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신 분이 바로 ‘마틴 스코塞이지’였다. 내가 학교에서 마틴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다”면서 마틴 스코세이지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같이 후보에 오른 감독들은 디들 너무나 존경하는 감독들인데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리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농담해 웃음을 줬다.

이날 봉준호 감독이 가장 먼저 수상한 상은 각본상이다. 봉 감독은 각본상 수상 후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지만 한국에선 첫 번째 상”이라며 감격을 표했다.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한진원 작가는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듯, 한국에는 총무로가 있다”며 “총무로 모든 작가와 필름메이커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아카데미, 감사하다”며 화한 미소를 지었다.

봉준호 감독은 국제극영화상 수상 소감을 밝히기 위해 두번째로 무대에 섰다. 그는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다. 외국어영화상이 국제극영화상으로 이름을 바꾼 후 첫번째 상을 받게 돼 의미가 더 깊다”고 밝혔다.

또 봉 감독은 “이 영화를 함께 만든 멋진 배우와 스태프가 여기 와있다”며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이름을 불렀다. 특히 송강호를 비롯한 주연들은 전원 기립해 기쁨을 표했고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봉준호 감독은 “아침까지 밤새 술을 마실 준비가 됐다”면서 재치 있게 소감의 끝을 맺었다.

최이슬 기자 · 뉴스1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프레스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케이티이미지뱅크

전남 사회적기업 경쟁력 확보 위해 대폭 지원

전남도는 10일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36곳을 신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희망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최대 5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비롯해 △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개발비 5천만~1억원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각종 재정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지정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자격을 얻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증액된 115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제품

연구·개발, 판로·홍보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비와 특화사업비도 지원한다.

현재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은 237개로 민선7기 목표(300개)의 74%를 달성 중이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민선7기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2천개 육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신청

하면 된다.

기업 선정 결과는 현장설사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엄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립과 성장에 밀접성이 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기여할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외신도 한목소리 호평

미국 CNN “역사적인 승리”

뉴욕타임스 “새 역사 썼다”

미국 CNN이 ‘기생충’의 최우수작품상 수상에 대해 “새 역사를 썼다”고 전했다.

CNN은 현지시간 9일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은 처음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상이 되면서 새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다.

이어 CNN은 “제1차 세계대전을 다른 ‘1917’이 선두 주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어워드 시즌 할리우드 업계와 비평가들이 이 한국 스릴러에 보여준 찬사를 비춰볼 때 충격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 역시 ‘기생충’의 수상에 대해 “외국어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의 정상에 섰다”면서 “영화 ‘기생충’의 역사적인 승리가 #OscarsSoWhite 운동 이후 사회법인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 Sciences)가 투표 순위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최우수작품상 후보들이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 기반 영화였던 데 반해 ‘기생충’이 전통적인 극장 개봉 형식 영화였다는 점을 들며 “개급 전쟁에 대해 다른 ‘기생충’ 투표자들에게 미래를 꺼안게 만드는 동시에, 수십년간 번복된 전통을 지킬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영화 ‘기생충’의 수상을 통해, 투표자들은 넷플릭스의 급격한 부상장을 잠시 늦췄다”면서 ‘기생충’이 24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린 넷플릭스 영화를 꺾은 데에도 의미를 뒀다.

강아라 기자 · 뉴스1

밤부터 흐려져 내일은 비

11일 낮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져 전남 해안과 남쪽 면바다에서 빛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12일 새벽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고 낮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광주와 전남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 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띠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